

미디어 프레임 쉬프트 (media frame shift)의 메카니즘에 대한 프레임 연구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로비 의혹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Mechanism of Media Frame Shift

- Research on the Media Frame about Alleged Lobbying Incidents of  
Former President Roh Mu-Hyun in 2009 -

임의택\* (방송영화제작과)

Lim,Eui-Taek\* (Dept. of Film and Video Production)

Key Words : Conservative Press, Frame Analysis, Press Fairness

ABSTRACT : This study categorized the investigation for 'Alleged lobbying incidents of former president Roh, Mu Hyun' in 2009, through media frame analysis and article analysis, following-up to complement 'Study on the Media Frame about Case of Korea Former President Roh-Mu Hyun being Prosecuted by Korea Prosecution for Suspicious Scandal 2009'. Also,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what is the fairness of the media which fit into the journalism of new digital-era; when everyone becomes the media.

The attitude of the conservative media showed towards 'investigation of the close people with the former president Roh, Mu Hyun' in 2009 were the furious reaction to let-down of 10 years of progressive party holding the power. And the progressive media put the curses on the paper because they felt betrayed even if they put much expectation and faith. From these cases, this research categorized the attitude of the media as 1) neglect & ignore frame, 2) backbiting frame, 3) mudslinging frame, 4) lowlife frame. Moreover, copy-and-paste practice of Korean media and the show-business casting trend combined altogether, transmuted the incident as a kind of peep show which ignored the truth of fact, and the right of defense and the human right of the suspect.

The case was counterevidence that the material development such as economical development of the country, increase of the educated member of society, and the progress of the media can never guarantee the qualitative advance of media.

This research tried to discuss the humanist perspective report attitude based on independence from the authority as a standard of fairness of media which fit into the fast-developing new media-era.

주제어 : 보수언론, 프레임 분석, 언론의 공정성

요약 : 본 연구는 2012년 12월에 발표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로비 의혹 검찰수사를 통한 미디어 내용 분석과 언론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sup>1)</sup>의 후속연구로써 기사분석을 통해 프레임(frame)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것은 선행연구에서 미흡한 프레임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고자 함이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로비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한 한국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통해 보수 언론들은 1997년 이후 진보적 정권으로 권력구조가 개편되면서 10년간 상대적으로 잃어버렸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분풀이를 쏟아내었고 진보적 언론들은 '기대'와 '믿음'에 대한 배신감으로 저주를 지면에 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케이스에서 우리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①무시와 외면 (neglect & ignore) 프레임 ②협담 (backbiting) 프레임 ③인신공격 (mudslinging) 프레임 ④범죄자 (lowlife) 프레임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거기에 이른바 한국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과 쇼 비즈니스적 취재 트렌드가 결합하면서 팩트

---

\* 용인송담대학교 방송영화제작과 교수, [meets2000@ysc.ac.kr](mailto:meets2000@ysc.ac.kr)

1) <동아시아 경제사회연구>.동아시아 경제사회학회. 79p

의 진실, 피의자의 인권과 항변권은 도외시한 일종의 피쇼(peep show)로 변질되었다. 국가의 경제적 발전, 교육받은 구성원의 증가, 미디어의 발전과 같은 물질적 발전이 결코 미디어의 질적 발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례였다.

권력으로부터의 최소화된 독립성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적인 보도태도를 기반으로 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도의 공정성'의 기준을 논의하고자 한다.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 신문 산업의 위기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신문의 위기를 경영합리화의 소홀과 시장지배력의 약화라는 측면에서 찾기도 하고<sup>2)</sup>인터넷과 뉴미디어의 도전에 대한 비효과적 대응이라는 것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sup>3)</sup> 신문 저널리즘 활동의 구조적 환경문제와 이에 근거한 신문의 내용적 부실함이 문제가 된다는 진단도 있다.<sup>4)</sup> 이런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 원인론과 달리 위기의 원인을 한국 사회 내부 구성원의 이념적 분화에 따라 신문에 대한 요구와 평가 기준이 달라지면서 공정성 위기와 신뢰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는 위기 내인론 주장도 있다.<sup>5)</sup>

다양한 프레임의 위기 원인론 중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2005년 이준웅과 최영재가 제시한 세 가지의 가설은 뉴스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 제공, 공정성 위기론을 들 수 있다. 그 중 공정성의 위기는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에서 역동적으로 펼쳐진 한국적 정치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흥미로운 원인론이다. 흥미로운 개념 중 하나인 언론권력에 대해 김승수는 “시장 지배적 매체기업이 대중적 여론통제력과 경제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방식의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형태”라고 정의하였다.<sup>6)</sup> 언론권력의 뿌리는 자본주의가 성장하여 유통부분이 거대해진 이후부터로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급속한 자본의 축적에 성공한 매체자본은 기업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이윤추구에 그치지 않고 국가권력을 지향하게 되고 특정한 매체자본의 이런 시도는 시민사회의 합리적인 운영에 많은 지장을 준다.<sup>7)</sup> 또한, 언론권력이 국가권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곧잘 둘러대는 것이 '위기론'이다. 위기 유무에 상관없이 언론권력이 위기를 부풀려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더불어 정권의 무능력을 과장함으로써 시민과의 괴리감을 조성한다. 또 언론권력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을 공격하고 전복시킬 것을 바라는 여론을 조성하기도 한다.”<sup>8)</sup>

지난 10년간 한국사회를 경험적으로 되돌아보더라도 <sup>9)</sup>강준만과 <sup>10)</sup>양승목의 미디어의 정치권력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sup>11)</sup>홍윤기(2000)는 조선일보를 정점으로 하는 한국의

2) 이은주, 「신문산업과 경영:현황과 문제점」, 『위기의 한국신문』(서울:한국언론재단, 2005)

3) 황용석, 「뉴스의 다매체전략 전략과 통합 뉴스룸」, 『한국언론재단연구서』,(서울:한국언론재단,2003)

4) 임영호, 「신문산업과 경영:현황과 문제점」, 『위기의 한국신문』(서울:한국언론재단, 2005)

5) 이준웅, 최영재 「한국 신문 위기의 원인 : 뉴스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 제공, 그리고 공정성 위기」, 『한국언론학보』(서울:한국언론학회,49권 5호, 2005)

6) 김승수, 「언론권력의 정치경제학」, 『한국언론정보학보』,(서울:한국언론정보학회, 22호, 2003)

7) 상계서, p. 4

8) 상계서, p. 4

9) 강준만, 『권력변환: 한국언론117년사』(서울 : 인물과 사상, 2000)

10) 양승목,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성격 변화: '자율언론'의 딜레마」, 『한국사회변동과언론』,(서울:소화,1995) pp. 93-146

11) 홍윤기 「반입장의 입장: 우리 시대의 권력 비판과 권력 감수성」, 『월간 인물과 사상』(10월호, 2000) pp.

미디어 권력은 권력행사에 대한 주체의식 또한 커서, 미국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단순하고 책임 없는 이기적인(self-serving) 단계를 넘어 목표지향성이 매우 뚜렷한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권력으로부터 최소화된 독립성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도의 공정성의 기준을 논의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어 미디어별 행태를 측정하였다. 언론의 기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정보 공정한 해석 다양한 의견들을 타당하게 제시하는 것에 있다. 시민의 기본적인 신뢰를 뒤흔드는 이해관계의 조종이나 필요에 의한 현실적인 의식이 과다하게 함축된 정보의 남용은 그 사회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양극화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소통의 위기를 맞게 한다. 그동안 주류문화에서 소외되었거나 반감을 갖은 계층, 이념이나 지역, 세대, 언론인 사이의 장벽 등 다각도로 심화되어 가는 소통 부재의 시대적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2.1 연구문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로비 의혹 검찰 수사’는 ‘언론의 국가권력 공격’이라기 보단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영합하여 자행한 정치적 살해 케이스이며, ‘보도적 사형(私刑, press lynch)에 가까웠다.<sup>12)</sup> 특히 이 케이스에는 종래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에 근거한 언론에 대한 이분법적 분류, 즉 진보와 보수언론간의 보도 편차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진(全)언론 對 노무현의 구도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로 이어짐으로서 그 의미와 영향이 크다.

연구문제-1) 노무현 전 대통령 로비 의혹 검찰 수사 대한 보수, 진보 언론 간의 뉴스 프레임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2)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검찰조사에 대한 보도 태도는 오로지 보수 언론만의 뉴스프레임이었나 ?

### 2.2 연구방법

#### 2.2.1 프레임(frame) 분석

연구자들마다 뉴스 보도내용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뉴스보도의 내용을 ‘일화적(episodic) 프레임’, ‘주제적 프레임’, ‘전략적 프레임’, ‘이슈 프레임’, ‘책임 귀인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갈등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경제 뉴스 프레임’, ‘권위주의적 정책 실행 프레임’, ‘다항 프레임’, ‘민주적 합의 프레임’, ‘개발 프레임’, ‘환경보호 프레임’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강내원, 2002).

---

90-125

12) 보도적 사형(報道的 私刑 press lynch)의 개념은 언론이 악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피보도 대상을 가혹하게 폭력적 보도를 한다는 것으로 본 연구자의 개념이다.

다양한 내용적 차원의 프레임 분석에서 프레임을 도출해 내는 과정은 크게 연역적 접근방법과 귀납적 접근방법에 의해 틀(frame)을 도출할 수 있다(Semetko & Valkenburg, 2000).

먼저 연역적 접근법이란 이미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미 정의된 프레임에 분류되는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인 귀납적 접근법은 프레임에 대해 고정적인 관점을 고집하지 않고 또한 분류기준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 대상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능한 프레임을 모두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접근방법의 특성으로서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반복해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며, 읽혀 있는 프레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검찰조사’는 보수, 진보 언론사간의 이념적 토대 및 지향과는 상관없이 전 언론 對 노무현의 구도였다. 2009년 대한민국의 신문사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공적 존재, 노무현’과 ‘사적 존재, 노무현’을 바라보았으며 그 프레임을 어떻게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전달하였는가를 탐색한다.

### 2.2.2 분석 대상 분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전 한국의 신문사들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노무현 개인에게 비판적인 프레임을 견주었기 때문에 신문사 간 대립 구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그룹 별 분류 없이 동일 사안에 대해 신문사들이 보도했던 프레임들을 시기 별로 분석하여 프레임을 도출하고자 한다.

### 2.2.3 분석 범위 및 기간

[표 1] 분석 대상 기간 별 이슈

구분	노무현 로비 의혹 조사
기간	2009년 3월 ~ 5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체포</li> <li>▪ 노대통령 조카사위 안철호씨 체포</li> <li>▪ 부인 권양숙씨 부산지검 소환 조사</li> <li>▪ 노건호씨 소환 조사</li> <li>▪ 노 전 대통령 검찰 소환</li> </ul>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수사 는 실질적인 도화선이었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2008년 7월 시작되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조사는 2009년 3월 14일 대 검찰정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회장을 대상으로 로비 의혹 조사를 개시하면서 시작되었기에 분석 범위 기간을 2009년 3월부터 5월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날까지로 한다.

### 2.2.4 분석의 종류와 항목 설정

내용분석에 주요한 요소(key factor)로 연구의 성패를 구분 짓는 분석유목의 설정은 내용분석과 프레임 분석에도 공통적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유목을 설정해야 한다.

[표 2] ‘노무현 전 대통령 로비의혹 수사’ 분석의 종류와 항목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로비의혹 수사

	항목
프레임 분석	무시와 외면 (neglect & ignore) 프레임
	협담 (backbiting) 프레임
	인신공격 (mudslinging) 프레임
	범죄자 (lowlife) 프레임

‘노무현 전 대통령 로비의혹 수사’의 1단계를 내용분석으로 진행하되 보다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은 내용분석의 두 번째 단계에서 당시 언론들이 보도의 기본 소스로 삼았던 정보의 출처(source)에 관한 분석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논란거리인 검찰 당국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빨대’를 통한 의도적 정보 흘리기와 이에 맞장구를 친 언론사들의 경마식 보도행태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프레임 분석에서는 저자가 설정한 4가지의 프레임을 통해 보수, 진보 이념을 떠나 분석 대상 신문사들이 당시 그 이슈를 바라보고 해석했던 패턴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 3. 연구결과 및 분석

####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로비의혹 수사’ - 프레임(frame) 분석

##### 3.1 프레임(frame) 정의

‘노무현, 검찰, 의혹, 참여정부, 로비’를 키워드로 한 기초 데이터 추출을 통해 확보된 기사와 사설 등의 자료를 읽고 해석하면서 네 가지의 프레임을 만들었다. 이 프레임의 도출은 원 데이터의 진술문들을 유형화, 패턴화 작업을 통해 분류하면서 도출되었으며 각 프레임의 캐릭터를 반영한 프레임의 이름을 붙였다. 각 프레임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표 3] 노무현 전 대통령 케이스 프레임(frame) 정의

	프레임 종류	내용
프레임 분석	무시와 외면 (neglect & ignore) 프레임	이슈의 팩트 자체를 무시하고 진실보다는 가상의 팩트를 만드는 프레임
	협담 (backbiting) 프레임	현 이슈와 상관없는 다른 사안으로 현 이슈의 팩트를 부정하는 프레임
	인신공격 (mudslinging) 프레임	이슈의 쟁점이나 팩트와 상관없이 보도 대상 자체를 중상하는 프레임
	범죄자 (lowlife) 프레임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고 유죄를 미리 예단하여 보도하는 프레임

##### 3.2 프레임의 내용 분석

### 3.2.1 무시와 외면 (neglect & ignore) 프레임

무시와 외면 프레임은 이슈의 실제 팩트를 무시하고 뉴스 생산자가 임의의 팩트를 작성하여 비난하고 그 비난에 대한 반론이나 상황을 무시하는 프레임이다. 그 사례를 각 신문사 별로 유형화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표 4] 신문사 사설·칼럼에서 나타난 무시와 부정 프레임

신문/날짜	제목	기사
한겨레 (4/9)	<검찰에 앞서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라>	'면피용', 진정한 참회와 반성은 없고 어떻게든 궁지를 모면해 보려는 안간힘
한겨레 (5/1)	<비굴이나 고통이나>	가령 노 전 대통령이 앞으로 기소를 면한다 치자. 그래도 그의 무죄가 확인됐다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진술할 필요야 없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을 내세워 구차하게 범망을 빠져나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조선일보 (4/9)	<盧 전 대통령, '제2. 제3의 노무현' 나오지 않게 진실 밝혀야>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는 '사과문'은 가릴 건 가리고 시치미 댈 건 시치미 떼고 남 탓으로 돌릴 것은 남 탓으로 돌린 '변호사 노무현'의 법정 진술 메모에 지나지 않는다. 법률을 자신의 허물로 가리는 방패로 이용할 궁리를 하는 듯하다
조선일보 (4/14)	<'노무현 전 대통령' 에서 '변호사 노무현' 으로>	노 전 대통령은 '진실' 대신 '증거'를 붙들고 그 뒤에 숨으려 하고 있다. '중요한 건 증거'라면서 법 그물을 빠져나가며 검찰과 술래 잡이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4/27)	<노무현씨를 버리자>	'다만 피의자로서 권리'만은 지키고 싶다고 했다. 참으로 졸렬한 발상이다...전직의 명예가 무너진 마당에 사법절차에나 매달리겠다니 인간이 불쌍하다는 생각 뿐
경향신문 (4/16)	굿바이 노무현	그런데 노무현은 범죄와 도덕적 결함의 차이, 남편과 아내의 차이, 알았다와 몰랐다는 차이를 구별하는데 필사적이다. 그러나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시와 외면 (neglect & ignore) 프레임은 검찰에 반하는 의견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비난으로 표현된다. '면피용', '궁지를 모면하려는 안간힘', '시치미', '궁색하고 역겨운 짓', '수사의 부실을 조롱', '구차한 삼류 드라마' 라는 표현들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거나 검찰 수사가 진실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모든 혐의 사실이 입증된 것을 전제로 원색적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때는 언론의 입장에서 마땅히 비중을 두어 보도해야 한다. 그런데 분명히 법적인 절차에 대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대응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임과 동시에 치명적인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신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이미 유죄를 선고하고 판결까지 내려버렸다. 대다수의 미디어 수용자들은 이슈의 진실과 상관없이 노무현은 유죄라는 생각을 공유하

게 되었다.

### 3.2.2 험담 (backbiting) 프레임

험담 (backbiting) 프레임은 현 이슈와 상관없는 다른 사안으로 현 이슈의 팩트를 부정하는 프레임이다. 신문들은 검찰 측의 혐의를 전제로,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 5년 재임기간에 대한 부정적 평가 보도를 쏟아내었다. 그 사례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표 5] 신문사 사설·칼럼에서 나타난 험담 프레임

신문/날짜	제목	기사
경향신문 (4/16)	<굿바이 노무현>	재벌개혁을 다짐하고는 삼성에 국정을 위탁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는 스스로 특권층이 되고 노무현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던 열정을 싸늘한 냉소로 바꾸어 놓고 자기들은 안전지대를 타고 탈출하려 했다는 사실...
중앙일보 (3/26)	<자칭 '도덕정권의 부패가 이 지경이라니>	노무현 부대는 한국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혼란에 빠트렸다. 자신들의 도덕성을 깃발로 내세웠지만 국민들은 기만당했다.

[표 6] 신문사 사설·칼럼에서 나타난 험담 프레임

신문/날짜	제목	기사
중앙일보 (5/1)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5년 동안 나라의 정체성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지와 없는 자는 더 크게 갈라졌다. 그 실정(失政)의 무게가 비리보다 크다
중앙일보 (5/4)	<노무현의 허공>	헌법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으면서도 철저히 헌법을 유린했다. 한미동맹 때문에 이라크에 파병을 하면서도 맥아더 동상을 공격하고 군인을 패는 반미세력을 방치했다. 한미무역자유협정을 맺으면서도 농민시위부대를 막았던 경찰청장을 내쫓았다. 노무현 5년은 이런 이중성이 흐려놓은 흙탕물의 세월이었다.
조선일보 (4/9)	<노 전 대통령, '제2, 제3의 노무현 나오지 않게 진실 밝혀야>	검찰 수사에 의해 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시대'를 떠받친 기둥이라고 내세워 온 도덕성의 위선적 뒷모습이 폭로되면서 노무현 시대 5년은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위의 기사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혼란에 빠트리고 국민을 기만한 대통령이고, 5년 재임동안 나라를 흙탕물의 세월로 만들었으며, 위선적 정권이었다. 검찰도 인정한 박연차회장의 진술에만 근거한 검찰의 혐의 사실에 대한 확정적 예단과 전제를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이 사선과 전혀 관계없는 나라를 망친 폭군으로 묘사한 것이다. 심각한 논리의 비약일 뿐 아니라 비이성적인 악의에 기반을 둔 감정의 배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 3.2.3 인신공격 (mudslinging) 프레임

인신공격 프레임은 이슈의 쟁점이나 팩트와 상관없이 보도 대상 자체, 자연인으로서 대상을 중상하는 프레임이다. 노무현을 다룬 거의 모든 기사들에서 조롱, 비난, 모욕적 단어와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프레임은 미디어 수용자에게 환멸감과 경멸감을 고취시켜 이슈의 실제 팩트를 무시하게 만들거나 나중에 그 진실이 밝혀져도 그 환멸의 감정을 일종의 원체험 (primitive experience)처럼 각인 (imprint)시키게 한다. 그 사례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표 7] 신문사 사설·칼럼에서 나타난 인신공격 프레임

신문/날짜	제목	기사
한겨레 (4/9)	<검찰에 앞서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라>	'아내'를 뜻하는 수많은 단어를 두고 굳이 '집의 부탁'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쓴 것부터가 구차하다. 그것으로 국민의 동정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
한겨레 (4/8)	<노 전 대통령, 국민 가슴에 대못박았다>	무모할 정도로 저돌적이었지만 청렴성만큼은 믿고 했던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게다가 그는 한 오라기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없었다.
조선 (3/30)	4년 후 MB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	어쩌면 노씨와 그의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것은 노씨 등이 너무 까불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4/12)	<어제는 대통령부인, 오늘은 대통령 아들>	노 전 대통령의 사람 알아보는 눈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만하다.
조선일보 (4/15)	<비겁한 남편>	법적인 책임을 면할 요량으로 부인 뒤로 숨는 '비겁한 남편'의 모습에서 허탈함마저 느끼고 있다.
조선일보 (4/16)	<강금원 부통령 모시며 뒷돈 받던 親廬 건달들>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던 집권세력이라는 그들의 도덕성이나 의식세계가 딱 길거리 건달 수준이다.
조선일보 (4/27)	<노무현 씨를 버리자>	노무현 게이트에 얽힌 돈의 성격과 액수를 보면 그야말로 잡범의 수준이다. 정치자금도 아니고 노후자금인 것 같고 가족의 생계형 뇌물수수 수준이다
중앙일보 (4/16)	<염치>	염치와는 담을 쌓은 이런 암체들에게 그냥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기사들에서 사용한 표현은 기존의 저널리즘의 차원이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오는 '악플' 수준보다도 못한 원색적인 비난이고 조롱이고 야유다. 특히 조선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함이 아니라 '노씨'라고 칭함으로서 최소한의 금도(襟度)를 여기기도 했다. 이런 기사들의 원색적인 표현들은 강렬한 캐치프레이즈나 선동구호처럼 강한 파급력과 소구력을 갖는다. 이 기사를 수용한 수용자들에게 노무현의 캐릭터는 뿌리 깊게 각인(imprint)될 수밖에 없다.

### 3.2.4 범죄자 (lowlife) 프레임



범죄자 프레임은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고 유죄를 미리 예단하여 보도하는 프레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어떤 유죄도 입증된 적이 없다. 오직 박연차회장의 진술에 근거해 검찰이 제시한 혐의만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죄를 단정하고 그를 범죄자로 취급했다. 그 프레임들의 사례를 아래 표에 정리했다.

[표 8] 신문사 사설·칼럼에서 나타난 범죄자 프레임

신문/날짜	제목	기사
조선일보 (5/2)	<전직 대통령 부부는 검찰 수사 이런 식으로 만나>	노 전 대통령이 100만 달러 존재를 알았다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다.
중앙일보 (4/10)	<노 전 대통령 언제까지 구차한 변명만 할텐가>	노 전 대통령은 마치 무죄를 주장하는듯하다. 이미 혐의는 이런 주장을 할 정도를 지난 지 오래다. 노대통령이 받아야 할 것은 법적 평가가 아니라 책임과 처벌이다.
중앙일보 (4/14)	<박연차 수사, 정치바람에 휘둘려선 안 된다>	만약 부실한 수사로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검찰은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 (5/4)	<노무현에게 카인의 벌을>	그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을 전제로 철저히 조사하고 법원은 엄정히 심판하되 실형만은 면하도록 해야 한다.
경향신문 (4/21)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봤다>	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히고 단죄 받아야 마땅하다.
동아일보 95/4)	<노무현씨를 법정에 세워야 하는 이유>	더욱이 노 전 대통령을 아예 법정에 세우지 말자는 것은 그의 배신과 비열함에 분노하는 수많은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발상이다.

이 기사들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등장한다. '100만 달러 존재를 알았다면 사법처벌을', '사실이라면 법과 수사의 허점을 이용한 신중 부패수법', '정치적 고려라면 노 전 대통령은 두 번의 죄를 짓는 것' 등 확인되지 않은 예단과 가정에 근거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면'을 이야기함으로써 노무현의 유죄를 확정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앙일보는 칼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처벌 방법'을 진하기도 했다.

이 시점까지 노무현의 혐의 사실은 그 어떤 것도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신문기사대로라면 그는 이미 범죄인이 된 것이다. 보도에서 가정과 추측,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과도한 처벌을 이야기하고, 사면까지 운운하는 것은 수용자로 하여금 전제로 삼은 가정과 추측을 확신케 한다.

이런 보도들을 본 수용자들의 감각체계와 인식체계 속에는 '노무현은 범죄자'라는 이미지가 구축되고 노무현의 어떤 항변이나 법적 대응 노력도 모두 '구차한 짓거리'에 지나지 않은 것이 된다.

#### 4.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로비의혹 검찰 수사’의 케이스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권력과 언론과의 관계, 뉴스 프레임의 설정을 통한 팩트의 왜곡에 대한 파악이었다. 이런 목적에서 연구문제를 도출하여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로비의혹 검찰 수사’에 따른 우리나라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오래도록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기록될 것이다. 보수 언론들은 1997년 이후 진보적 정권으로 권력구조가 개편되면서 10년간 상대적으로 잃어버렸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분풀이를 쏟아내었으며 진보적 언론들은 믿음과 기대에 따른 배신감으로 분노를 신문에 담았다.

이 사례에서 우리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무시와 외면(neglect & ignore) 프레임, 헐담(backbiting) 프레임, 인신공격(mudslinging) 프레임, 범죄자(lowlife) 프레임, 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거기에 이른바 한국 언론의 ‘받아쓰기’관행과 쇼 비즈니스적 취재 트렌드가 결합하면서 이 사례는 사실과 진실, 피의자의 인권과 항변권은 도외시한 일종의 핍쇼(peep show)로 변질되었다. 국가의 경제적 발전, 교육받은 구성원의 증가, 미디어의 발전과 같은 물질적 발전이 결코 미디어의 질적 발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례였다.

이 논문의 결과에서 우리가 새롭게 논의해야 하는 것은 과연 이 시대에 새로 도출해내야 하는 ‘언론의 공정성’은 무엇에 기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핫 미디어 (hot media)는 스마트폰과 SNS (social network service)이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음성통화 수단만으로 사용했던 과거 휴대폰 문화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국민 생활과 사회·문화,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파고들어 세상을 새로운 시대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즉 시대가 모바일(mobile)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환경이 이동성·편재성(ubiquitous)을 속성으로 하는 모바일 시대로 이행하면서 모바일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인 상호작용성(interactive)에 대해 탐색해 보아야 한다. 상호작용성에 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광고·마케팅·커뮤니케이션·정보과학·컴퓨터과학·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런 매체 환경의 변화에서 의미 있게 봐야 할 것은 이 모바일 환경과 이에 기반 한 SNS가 실제 현실 공간에서 의제 설정과 보도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뉴미디어(new media)와 상대적으로 올드 미디어(old media)가 ‘불안한 공존’을 벌이고 있는 이 시기에 새롭게 논의해야 할 ‘언론의 공정성’이란 산술적 기계적 균형에 기반 한 중립적 태도 탈피, ‘소수자(minority)’ 지향의 휴머니즘, 질차적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옹호라고 생각한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언론의 본래적 가치를 주장하고 싶으나 이미 자본과 국가의 영역이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자본의 탐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제 부분의 종속성은 이미 심화되었기에 논의에서 제외하고 ‘권력으로부터의 최소한의 독립성과 이에 기반 한 마이너리티 지향의 휴머니즘적 보도태도’를 새로운 언론 공정성의 기준으로 삼기를 제안한다. 또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로비의혹 검찰 수사’의 사례에서 배운 우리 언론의 역기능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발전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명구(2004). 「한국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 『한국언론학보』, 48권5호, 319~348.
- (2) 강미선·김영옥·이민규·장호순·신인섭·주은수(2003). 『신문의 위기 : 진단과 처방』. 서울 : 한국언론재단.
- (3) 강상현·윤영철 공역(1991). 『지배권력과 제도 언론: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역할과 쟁점』. 서울 : 나남.
- (4) 강준만(2000). 『권력 변환 : 한국언론 117년사』, 서울 : 인물과 사상.
- (5) 강형철(1999). 「신문보도의 주관성과 객관성」. 『언론과 사회』, 겨울통권 제26호.
- (6) 김동춘(2003). 『한국의 언론정치와 지식권력』. 서울 : 당대
- (7) 김승수(2003). 「언론권력의 정치경제학」, 『한국언론정보학보』, 서울 : 한국언론정보학회, 22호.
- (8) 문종대·안차수·진현승·안순태(2007). 「언론 수용자의 공정성 개념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서울:한국언론정보학회 38호.
- (9) 박경숙(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 의약 분업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6-2호, 310~40.
- (10) 손석춘(2007). 『신문읽기 혁명』. 서울 : 개마고원.
- (11) 양승목(1995).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성격 변화: ‘자율언론’의 딜레마」, 『한국 사회 변동과 언론』, 서울 : 소화 pp. 93~146.
- (12) 윤영철(2001).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서울 : 유민문화재단.
- (13) 이준웅(2006). 『한국 신문위기의 원인 진단』. 서울 : 커뮤니케이션 북스.
- (14) 이준웅 외(2011). 『2010 언론수용자 인식조사』. 서울 : 한국언론재단.
- (15) 이효성(1999). 『언론정치의 현실과 과제』,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16) 이준웅(2003).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한국 언론의 공정성 요구」, 『전환기의 한국 언론』, 서울 : 한국언론학회.
- (17) 장호순(2005). 『국내의 신문위기와 대응방안』.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18) 정미영(2009). 「우리 언론은 노무현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
- (19) 차배권(1992). 『사회과학방법론』. 서울 : 세영사.
- (20) 홍윤기(2000). 「반입장의 입장: 우리 시대의 권력 비판과 권력 감수성」, 『월간 인물과 사상』 (10월호) pp. 90-125
- (21) 황용석(2003). 「뉴스의 다매체 전략과 통합 뉴스룸」, 『한국언론재단 연구』, 서울: 한국언론재단.
- (22) Altschull, J. H(1984). *Agents of Power: the media and public policy*. New York: Longman Press.
- (23) Cappella & Jamieson, K. H(1997). *Spiral of Cynic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24) Donohue, G. A., Tichenor, P. J. & Olien, C. N. A(1995), *Guard Dog Perspective on the Role of Media*, 『Journal of Communication Spring』 (Newyork : NYUP)